

준비하고 기회를 기다리자.



이덕순 넥스젠테크놀로지/대표이사

우 리말에 ‘기회’란 단어는 흔히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기회주의자 나, 기회를 엿본다는 등은 그리 호감이 가는 어휘는 아니다.

국어사전에 機會란 ‘무슨 일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라고 간단히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마치 漢字의 뜻을 기계적으로 번역해 놓은 듯한 느낌이다.

현대와 같은 문명사회에서는 ‘기회’라는 단어 속에는 보다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韓英사전에서는 ‘기회’라는 단어가 세가지 뜻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 첫번째가 ‘Opportunity’요, 두 번째가 ‘Chance’이고, 그 세 번째가 ‘Occasion’이다. Opportunity는 ‘부여 받은 좋은 상황’을 나타내는 어감인데 반해 Chance는 ‘우연’ 혹은 ‘우연한 일’의 의미가 있는 어휘로 自意와는 관계없이 ‘주어진 어떤 상황’을 나타낸다.

기회, 즉 이미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하면 원대한 ‘가능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늘은 공평하여 누구에

약력 : •61~68 미 RUNK •68~76 한국컨트롤데이터 •88~91 삼보컴퓨터 SW부문 사장 •92~93 삼보소프트웨어 사장 •현재 넥스젠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게나 균등한 기회를 주게 마련이고, 그 기회를 如何히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優劣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런 준비도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우리를 찾아온다 해도 그것을 感知조차 하지 못한다. 만일, 준비가 아직 덜된 상태에서 기회를 맞게 되면 붙잡을 능력이 없어 마냥 아쉽기만 하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虎視眈眈 기회를 노리는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기회가 오히려 그 기회를 捕捉하여 원대한 가능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

가령 회사에 전사적인 마케팅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다고 가정하자. 원래부터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프로젝트는 관심 밖 사항일 것이다. 반면, 데이터베이스 분야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책 한 권 정도 읽어본 사람으로서 그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DB에 대한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도 작성하는 등 뚜렷한 열의를 갖고 공부한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는 이제 DB 전문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필자가 컴퓨터분야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나에게 주어진 우연한 기회들의 연속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60대 후반인 필자는 불우한 세대에 속한다. 국민학교 입학할 때는 일본어를 배워야 했고, 고향이 북녘이라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영어를 배우다가 후에 러시아어로 바꾸어야

했다. 중학교도 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6.25전쟁으로 배움의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겼다. 열 네 살 나이에 혼자 삼팔선을 넘는 피난길의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은 참을 수 있었으나 배움의 기회를 빼앗긴 서러움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 한자라도 깨우치고 싶은 욕망으로 어렵사리 구한 NATIONAL(중학교 영어교과서)1, 2권을 일고 읽고 또 읽어서 전부 암기한 덕에 몇 년 후 학교에 다시 들어 갔을 때 영어만은 뒤지지 않을 수 있었다.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영어 덕분에 카츄사에 배치되어 미군 보급행정계통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때 컴퓨터 출력물을 접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컴퓨터분야에 첫발을 디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처음 들어온 때가 60년대 초이다. 美 8군에서 군수업무에 컴퓨터를 사용했고, 경제기획원 통계국에 IBM이 설치되어 있었다. 물론 컴퓨터 전문가도 없었고 교육기관도 없었다.

다행히 필자는 영문 매뉴얼을 읽을 수 있어 프로그램 공부 가능했다. 그 후, 필자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다. 프로그램 경력과 영어 덕분에, 외국으로부터의 새 기술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는 幸運이 있었다. 피난시절, NATIONAL 1권과 씨름을 시작했던 것이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찾아오는 ‘Chance’ 를 ‘Opportunity’ 로 전환하는 노력, 즉 偶然을 우연으로 남아있게 하지 말고 必然으로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自己가 먼저 自己自身을 도우면 하늘은 반드시 相應하는 기회를 내려 줄 것을 꼭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